

사회현상학 관점에서의 인터넷역기능 분류체계 표준화 연구

권정인[†] · 이성철[†] · 안성진^{††}

요 약

급속한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른 사용자 윤리의식의 문제점을 논하는 기존의 많은 정책과 연구보고서에서는 그에 따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방법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역기능의 문제점을 사후 해결책이 아닌 예방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역기능분류의 표준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역기능 분류의 표준 모델은 사회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역기능의 피해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1·2차 전문가 설문을 통해 미디어 중독, 유해콘텐츠, 사이버폭력, 권리침해, 사이버테러, 판단장해 등의 6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제시된 표준안 모델은 현재의 정보화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점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기능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혹은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교육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정보윤리, 정보통신 윤리, 정보화 역기능, 역기능표준모델

A Standardizing research of Internet adverse effects catalog from Societal phenomenological pointview

Jungin Kwon[†] · Seongchul Lee[†] · Seongjin Ahn^{††}

ABSTRACT

Since IT technology grow rapidly, our ethic of consciousness has become big issue with adverse effect. Many scholar has discussed and tired to solve this problem, but it is still helpless to fix. Therefor in this paper, author will not suggest the solution, but will present model list of adverse effects and cases to prevent accidents. The model list of adverse effects, what author will present is about media addiction, harmful content, cyber-violence, right infringement, cyber terror and decision obstacle. This model list is made by primary and secondary survey. This model will show adverse effect of present day, but also will show future adverse effects that can be prevent.

Through out this paper, this model list could use for education plan.

Keywords : Information Ethics,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Information Dysfunction, Standard Mode of Dysfunction

[†] 정 회 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종신회원: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1년 08월 30일, 심사완료: 2011년 09월 27일, 게재확정: 2011년 11월 07일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0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최근 급속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발달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인터넷 윤리라는 단어가 연일 이슈화되고 있다.

윤리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윤리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대적 발상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세대가 변하고 가치관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의 사회현상을 구시대적인 윤리의 잣대로 가늠하기에는 웬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 윤리를 논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비윤리적 행위 특히, 인터넷상의 비윤리적 행위는 이제 특정계층과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른 사회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윤리 즉, 인터넷 윤리를 논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윤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인터넷 윤리란 서로 공유하는 공간에서의 남과 같이 살아가는 암묵적인 규칙이며 현대사회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약속과 같은 것이다. 즉, 인터넷 윤리는 시대적 발달에 따른 사회현상이 반영된 규칙이며,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인터넷 역기능이다.

인터넷 역기능의 해결방안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 꼭 풀어야 하는 당면 과제이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의 많은 정책과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윤리의식의 결여에 따른 역기능의 해결책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역기능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려는 사후 해결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분야와 대상을 상대로 한 분류가 주를 이루거나 분류 체계에 따른 용어를 표준화하지는 못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분류와 대상을 통해 이루어졌던 역기능의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고자 한다. 이는 역기능의 문제점을 예방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예방책 모색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간 표준화하지 못했던 분류체계용어를 표준화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보다 포괄적이며 통합적 사고로 역기능을 분류하여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역기능의 구성 실태뿐만 아니라 신기술이나 기기의 발전에 따라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점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정보화 사회의 인터넷의 역기능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악성댓글, 게임중독, 사이버범죄,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점은 이제 단순히 인터넷 사용으로 벌어지는 역기능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역기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그에 따른 연구와 해결방안을 논의한 보고서가 연일 발표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유재택(2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기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 현상에 대한 분석 및 대처방안을 정보통신 윤리,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방지,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학교중심의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이나 개인으로 일반화하여 역기능을 분류하고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따랐다[2].

박병우(2007,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T관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역기능 및 대책에서는 역기능을 불건전정보유통, 유언비어 유포(허위통신, 명예훼손), 스팸메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및 정보시스템·네트워크 침해, 지적재산권침해, 전파 역기능, 인터넷 중독, 게임과 몰입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역기능을 다소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분류별 역기능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부족하였다[14].

정진욱(2009, 성균관대) 인터넷 이용자 윤리 소양제고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인터넷 중독, 유해정보, 인격침해, 정보침해, 사이버테러, 일반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의 특정부분에 대한 역기능 분류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기능의 분류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으나 분류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에 대한 역기능의 문제점을 포괄하기에는 다소 미약하였다[3].

서재철(2010) 인터넷 서비스의 역기능 분류에 관한 연구에서는 역기능을 사이버범죄와 사이버 일탈행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인터넷 전반에 걸친 역기능이라기보다는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역기능에 초점을 맞춘 분류로 일반화하여 사회전체의 현상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였다[12].

이와 같이 기존의 인터넷 역기능의 분류 방법은 그 대상과 분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현상학적 관점에서 현재의 인터넷 역기능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류함으로써 영역별로 그룹화시키는 표준안 작업을 통해 역기능의 표준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인터넷 역기능 표준화 모델

3.1 인터넷 역기능의 사회적 현상분석

본 연구자가 역기능의 분류에 기준을 둔 관점은 사회적 현상분석이다. 사회적 현상분석이란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 혹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문헌분석과 매체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문헌분석에는 논문(5건), 보고서(4건), 서적(4건)등을 통해 기존의 인터넷 역기능 분류체계를 보강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기능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매체분석으로는 신문(10건), 방송(10건), 웹사이트(10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역기능을 사례별로 모은 후 같은 분류의 사례를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타이틀을 내세우는 시도를 하였다.

<표 1>과 <표 2>는 역기능을 분류하면서 기준으로 활용했던 문헌분석(13건)과 매체분석(30건) 가운데 대표적인 자료만 발췌하여 정리해 놓은 표이다[13].

<표 1> 문헌분석 자료

문헌	제목	개요
논문	사이버범죄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8)	사이버상의 범죄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제도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4].
	초등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06)	초등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5].
	M. Buber의 만남의 사상이 정보화 사회 인간관계에 주는 교육적 의미 (2005)	마르틴 부버의 교육철학 사상을 통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성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6].
	모바일의 역기능 실태 분석에 따른 청소년 모바일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2008)	모바일 사용에 따른 역기능을 분류하고 모바일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7].
보고서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폭력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2009)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8].
	교육기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연구(2005)	초·중등학생의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기틀을 다지기를 기대한다[2].
	인터넷 이용자 윤리 소양제고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2009)	인터넷 윤리의식의 실태를 바탕으로 기존의 역기능을 분류작업 한 후 인터넷 윤리의식의제고를 위해 자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3].
서적	U시대의 인터넷윤리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확산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교재이다[9].
	A Gift of Fire,	컴퓨터를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가져야 하는 인터넷 윤리의식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였다[10].
	유비쿼터스 생활윤리	윤리의식을 실천하고자하는 10계명을 제시하면서 각 항목마다 역기능을 사례별로 예를 들었다[11].

<표 2> 매체분석 자료

매체	제목	개요
신문	과주 '선거 여론조사 조작' 주장 글..경찰 수사 (조선일보.2010)	경기도 과주시 시장 예비후보들의 각 홈페이지에 최근 지역 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는 누군가 허위사실을 pc방에서 가명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 불법유통' 블로그·카페 운영진 내일부터 소환 (동아일보.2008)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한 카페와 블로그 40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은 '도박스쿨'... 아이들이 위험하다 (중앙일보.2009)	인터넷을 통해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청소년 5명중 1명꼴이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청소년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방송	육군 중요 정보 '유출'...해킹 배후로 북한 의심 (SBS.2009)	육군에서 사용하던 PC가 해커에 의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화학물질 사고대응 시스템 인증서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 중독 실태와 대책 (MBC.2010)	인터넷 중독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악성댓글 범죄...피해 갈수록 늘어 (MBN.2008)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에 대한 소개와 명예훼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koshamedia/120109346897	미디어 리터러시의 오류로 인한 악성댓글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제기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http://cafe.naver.com/igg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14	휴대전화를 통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라는 SMS를 받고 무심결에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돈이 결제되는 사례를 통해 SMS 피싱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3.2 역기능 분류체계의 표준 모델링

<표 1>과 <표 2>의 사회적 현상분석의 사례를 토대로 인터넷의 역기능을 분류작업 한 후 그에 대한 대표적 역기능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여기에는 인터넷 중독, 유해매체, 사이버폭력, 정보침해, 사이버범죄, 판단저해 등이 있으며 각 분류의 하위메뉴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다

시 분류하였다.

영역별 분류의 정의를 내려 보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자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터넷 사용에 집착을 나타내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역기능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중독, 채팅중독, 쇼핑중독, 음란물중독, 정보검색 중독 등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유해매체란 말 그대로 해로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뜻한다. 유해하다는 의미는 해가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악의적인 의미와 좋지 않은 영향은 주는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이런 유해한 영향을 주는 매체를 사이트와 콘텐츠로 구분하여 유해사이트와, 유해콘텐츠로 역기능을 구분하였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인신 공격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혹은 생명에 대한 무시 등 타인에 대한 명예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역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학대, 인간소외, 성추행 등으로 구분을 지었다.

정보침해란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침해를 나타내는 역기능으로 여기에는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개인정보침해, 집단정보침해, 비밀 침해 등으로 구분을 지었다.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뜻하는 역기능으로 법의 영역에 접촉되는 역기능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이버테러, 일반범죄, 불법사이트 등이 있다

판단저해란 어떤 의견이나 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건전한 방향으로 의견이나 여론을 선동하는 형태의 역기능으로 여기에는 인포데믹스, 여론조작, 선동행위 등이 있다[13].

이와 같이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인터넷의 역기능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역기능을 포괄하여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로서 미래사회에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 역기능의 표준화된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현상에 따른 인터넷 역기능의 용어를 통합적으로 체계화 한 후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인터넷 역기능 표준화 모델의 6영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6월까지 총2차례에 걸쳐 델파이기법을 사용해 설문조사를 한 후 표준화 모델에 반영하였다[15].

4.1 연구절차

- (1) 1차 인터넷 역기능 표준화 모델선정
 - 사회적 현상이라는 관점하에 사례수집
 - 사례를 중심으로 역기능분류표 작성
- (2) 인터넷 윤리관련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 분류항목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 델파이조사
 - 1차 개방형 설문을 기반으로 역기능분류 수정
 - 1차 수정된 역기능 분류표에 의한 2차 폐쇄형 설문지 작성
 - 2차 델파이 조사 및 결과 분석
- (3) 설문을 기반으로 한 역기능 표준화 작성 수정 후 최종 표준화 모델 제시

4.2 연구방법

Anderson(1997)는 10~15명의 소집단의 전문가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규명하였으며[16], 윤미숙(1999)은 Dalkey(1969)의 논문을 인용하여 델파이 패널의 크기에 관한 상관관계에서 평균그룹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그룹의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Ewing, 1990)[17]. 1차 전문가 설문조사는 인터넷 윤리에 관련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설문으로써 10명의 패널 중에 4명에게 결과를 회수 받았으며 필요에 따라 면대면 조사를 병행하였다. 1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역기능 표준화 모델의 수정작업을

마친 후 2차 설문은 30명의 패널에게 설문한 결과 20명의 패널에게 결과지를 회수 받았다.

4.2.1 1차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넷 역기능분류의 6단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개방형설문으로 작성하게 하여 분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대상자는 평소 인터넷 윤리에 관해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인터넷 윤리 기관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면대면 조사를 병행하였다.

4.2.2 1차 설문결과

총 10명의 패널에게 설문지를 돌린 결과 1차 설문은 4명의 회수율을 보여 총 40%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6개의 영역 중 수정을 요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터넷 중독은 미디어중독으로, 유해매체는 웹사이트와 매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해콘텐츠로, 사이버 범죄는 정보과피로, 판단저해는 가치판단에 혼돈을 준다는 의미로 가치판단으로 수정하였다.

즉, 6개의 영역을 미디어중독, 유해콘텐츠, 사이버폭력, 정보침해, 정보과피, 가치판단으로 분류하여 1차 설문의 내용이 반영된 역기능 표준화 분류를 제시하였다.

4.2.3 2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에서는 1차 설문내용이 반영된 인터넷 역기능 표준화 모델을 가지고 폐쇄형설문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다. 질문의 구성은 분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 각 영역에 기타란을 만들어 두어 설문자의 추가의견이나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의 대상자는 평소 인터넷 윤리에 관해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기관의 대상자 및 인터넷 윤리의 강의를 경험한 패널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4.2.4 2차 설문결과

2차 설문은 SPSS를 이용해 통계 처리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하였다. 역기능모델의 표준안에 관한 분류기준을 묻는 설문에는 <표 3>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이 중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사회적 현상분석’이 역기능을 분류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아니라 좀 더 다각적인 방면에서 역기능을 분류할 수 있음을 제고해 보라는 의견이었다.

<표 3> 분류기준의 타당성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사회적현상분석의 분류기준이 역기능분류에 적절하다.		16 (80%)	4 (2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역기능 6개의(미디어중독, 유해콘텐츠, 사이버폭력, 정보침해, 정보과피, 가치판단) 영역에 따른 용어의 타당성을 설문하는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에서 용어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보과피와 가치판단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므로 용어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가치판단이라는 부분은 역기능을 대표하여 분류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보침해와 정보과피라는 용어도 역기능을 대표하여 분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로의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4> 용어의 타당성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미디어사용의 역기능을 ‘미디어 중독’으로 분류한다.		18 (90%)	2 (10%)
2. 유해매체와 사이트의 역기능을 ‘유해콘텐츠’로 분류한다.		18 (90%)	2 (10%)
3. 사이버상에서의 명예나 권익의 역기능을 ‘사이버폭력’으로 분류한다.		19 (95%)	1 (5%)
4.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역기능을 ‘정보침해’로 분류한다.		20 (100%)	-
5.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등의 사이버테러에 관한역기능을 ‘정보과피’로 분류한다.		10 (50%)	10 (50%)
6. 의견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에 따른 선동적형태의 역기능을 ‘가치판단’으로 분류한다.		11 (55%)	9 (45%)

<표 5>은 본 연구자가 인터넷 역기능의 표준안 모델로 제시한 6개 영역의 분류가 모든 역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지와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가를 설문한 의견이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6개의 영역으로 현시점의 역기능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역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표 5> 역기능의 대표성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6개영역이 인터넷 역기능을 대표할 수 있다.		16 (80%)	4 (20%)
2. 6개의 영역이 미래사회의 역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다.		15 (75%)	5 (25%)

<표 6>는 인터넷 역기능 분류 표준 중 미디어 중독에 관한 설문내용이다. 미디어 중독은 게임, 채팅, 거래, 음란물, 정보검색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터넷에 의존하는 심각한 증상에 해당되는 역기능을 분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미디어중독이 역기능의 분류로 적당하고 응답했으며 그에 해당하는 게임중독, 채팅중독, 거래(증권/쇼핑)중독, 음란물중독, 정보검색중독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밖에 기타의견으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중독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과 거래중독부분을 쇼핑중독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6> 미디어중독의 영역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미디어중독의 사례로 게임중독의 영역이 적절하다.		20 (100%)	-
2. 미디어중독의 사례로 채팅중독의 영역이 적절하다.		18 (90%)	2 (10%)
3. 미디어중독의 사례로 거래(증권/쇼핑)의 영역이 적절하다.		14 (70%)	6 (30%)
4. 미디어중독의 사례로 음란물의 영역이 적절하다.		17 (85%)	3 (15%)
5. 미디어 중독의 사례로 정보검색의 영역이 적절하다.		13 (65%)	7 (35%)

<표 7>는 유해콘텐츠에 해당하는 역기능에 관한 설문으로 유해콘텐츠에서 유해란 악의적인 의미와 좋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며 콘텐츠의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로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으로써 여기에는 유해 사이트와 유해매체를 통한 역기능을 포함시켰다.

유해콘텐츠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유해사이트와 유해매체가 유해콘텐츠 영역에 역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유해콘텐츠와 유해 매체, 유해 사이트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중복된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미디어 중독영역의 음란물과 유해콘텐츠부분의 유해사이트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7> 유해콘텐츠의 영역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유해콘텐츠의 사례로 유해사이트의 영역이 적절하다.	17 (85%)	3 (15%)
2. 유해콘텐츠의 사례로 유해매체의 영역이 적절하다.	14 (70%)	6 (30%)

<표 8>은 사이버폭력에 관한 설문 정리 내용으로 여기서의 사이버 폭력의 의미는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인신 공격적 문제와 인간관계 혹은 생명에 대한 무시 등 사이버상에서 타인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나 권익에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역기능에 관한 영역으로 여기에는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학대, 인간소외, 성폭력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폭력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으나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학대를 포함하는 것은 다소 낮은 긍정의 대답을 보이기도 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언어폭력과 학대의 차이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 인간소외부분의 삭제를 요하는 의견이 있었다.

<표 8> 사이버폭력의 영역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모욕의 영역이 적절하다.	14(70%)	6(30%)
2.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명예훼손의 영역이 적절하다.	19(95%)	1(5%)
3.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스토킹의 영역이 적절하다.	16(80%)	4(20%)
4.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언어폭력의 영역이 적절하다.	18(90%)	2(10%)
5.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학대의 영역이 적절하다.	11(55%)	9(45%)
6.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인간소외의 영역이 적절하다.	14(70%)	6(30%)
7. 사이버폭력의 사례로 성폭력의 영역이 적절하다.	14(70%)	6(30%)

<표 9>의 정보침해의 영역은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중요 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침해 나타내는 역기능으로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개인정보침해, 집단정보침해, 비밀침해, 행태 정보침해의 사례가 이에 포함이 된다.

정보침해 영역에 관한 설문응답자들은 대부분은 정보침해의 사례에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으나 사례가 지나치게 중복되고 세분화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비밀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집단정보 침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정보훼손의 영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9> 정보침해의 영역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정보침해의 사례로 초상권 침해의 영역이 적절하다.	18 (90%)	2 (10%)
2. 정보침해의 사례로 저작권 침해의 영역이 적절하다.	20 (100%)	-
3. 정보침해의 사례로 개인정보 침해의 영역이 적절하다.	18 (90%)	2 (10%)
4. 정보침해의 사례로 집단정보 침해의 영역이 적절하다.	15 (75%)	5 (25%)
5. 정보침해의 사례로 비밀 침해의 영역이 적절하다.	15 (75%)	5 (25%)
6. 정보침해의 사례로 행태정보 침해의 영역이 적절하다.	14 (70%)	6 (30%)

<표 10>의 정보파괴의 영역은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역기능으로 사례로는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을 포함한다.

정보파괴영역에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테러에 사례에 대해 설문자의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보였다.

<표 10> 정보파괴의 영역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정보파괴의 사례로 해킹의 영역이 적절하다.	19 (95%)	1 (5%)
2. 정보파괴의 사례로 바이러스의 영역이 적절하다.	18 (90%)	2 (10%)
3. 정보파괴의 사례로 사이버테러의 영역이 적절하다.	20 (100%)	-

<표 11>의 가치판단은 의견이나 정책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건전한 방향으로 의견이나 여론을 몰아가는 형태의 역기능을 표현하는 영역이다.

가치판단 영역의 사례로 인포텍스, 여론조작, 선동행위를 포함하였는데 설문자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답을 보였다. 사례로는 최근의 사회문제로 등장한 네카시즘과 온라인 옐로우 저널리즘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표 11> 가치판단의 영역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가치판단의 사례로 인포텍스의 영역이 적절하다.	12 (60%)	8 (40%)
2. 가치판단의 사례로 여론조작의 영역이 적절하다.	17 (85%)	3 (15%)
3. 가치판단의 사례로 선동행위의 영역이 적절하다.	14 (70%)	6 (30%)

<표 12>은 6개의 영역이 미래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이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미래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보였으나 정보파괴와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가치판단의 영역이 미래사회의 역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훨

씬 많았다.

<표 12> 미래사회의 역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가? (단위 : 명)

설문내용	응답	
	그렇다	아니다
1. 미디어중독 영역	16(80%)	4(20%)
2. 유해콘텐츠 영역	17(85%)	3(15%)
3. 사이버폭력 영역	10(50%)	10(50%)
4. 정보침해 영역	12(60%)	8(40%)
5. 정보파괴 영역	9(45%)	11(55%)
6. 가치판단 영역	6(30%)	14(70%)

4.3 설문조사를 반영한 최종 표준안

2차 설문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디어중독 영역에 사례로 SNS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유해콘텐츠와 유해매체, 유해사이트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유해사이트와 유해매체를 각각 웹사이트와 매체로 수정하였다. 정보침해 영역의 용어가 정보파괴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침해 영역을 권리침해 영역으로 수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례에 비밀침해는 개인정보침해와 집단정보침해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정보파괴영역은 파괴라는 단어가 의미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사이버테러 영역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사례에 있었던 바이러스부분은 악성코드사례로 수정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하였다. 가치판단의 영역의 용어를 판단장으로 수정하고 네카시즘과 온라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표준화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5. 결 론

현재의 인터넷 역기능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자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던 기존의 역기능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지금껏 발생한 역기능의 사례를 사회 현상학적 관점이라는 기준으로 조사 분



<그림 1> 인터넷 역기능 분류 표준안

석하여 역기능의 표준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이 반영된 표준안 모델을 통한 역기능의 분류작업은 나아가 미래사회에 역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화 모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13].

첫째, 기존의 서로 같은 분류의 역기능을 나타냈던 서로 다른 용어 표준화된 일반 용어로 통합할 수 있다.

둘째, 현 시점에 역기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화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현상을 반영한 표준화 모델을 통해 미래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각 영역의 역기능을 비교·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 혹은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비대책 혹은 교육용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역기능 분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기능 표준화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지수연 (2005).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 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유재택 (2000). 교육기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정책연구.
- [3] 정진욱외 (2009), 인터넷이용자 윤리의식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
- [4] 유백준 (2008). 사이버 범죄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신용렬 (2006). 초등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신동엽 (2005). M. Buber의 만남의 사상이 정보화사회 인간관계에 주는 교육적 의미.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은혜 (2008). 모바일의 역기능 실태 분석에 따른 청소년 모바일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황창근 (2009). 인터넷상 욕설, 악플등 사이버폭력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공법학회. 방송통신정책연구.

- [9]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2011). 인터넷윤리. 이한.
- [10] Sara Baase (2009). A Gift of Fire. Prentice Hall.
- [11] 김재덕외 (2009). 유비쿼터스 생활윤리. 진한 M&B.
- [12] 서재철 (2010). 인터넷 서비스의 역기능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13] 권정인의 (2010). 미래정보화사회의 역기능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제14권 2호, 201-204.
- [14] 박병우 (2007). IT관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역기능 및 대책. IT와 법연구.
- [15] 이종성 (2001). 텔파이방법. 교육과학사.
- [16] Anderson, D. (1997). Strand of System, ThePhilosophy of C, Peirce, West Lafayette:Purdue University Press.
- [17] Ewing, D. M. (1992). Futu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Preparation of Secretaries in the State of Illinois Using the Delphi Techniqu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권 정 인

2009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과(석사)

2010~현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교육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정보윤리, 컴퓨터교육

E-Mail: kji0502@empal.com



이 성 철

198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계산학과(학사)

1993 건국 산업대학교
전자계산학과(석사)

2011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박사수료)

1996~현재 이래정보시스템(주) 대표

관심분야: 정보보안, 네트워크관리, 정보윤리,
컴퓨터교육

E-Mail: yire98@empas.com



안 성 진

1988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학사)

1990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석사)

1998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박사)

1990~1995 KIST/SERI 연구원

1996 정보통신기술사

1999~현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네트워크관리, 정보윤리, 컴퓨터교육

E-Mail: sjahn@skku.edu